

1991 8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초등 4 부 여름성경학교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시편 서론

시편의 명칭은 영어로는 Psalm인데, 칠십인역의 명칭 '프살모이'(Psalmoi)를 음역한 것이며 그 뜻은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이다. 총 150편의 시로 구성된 시편은 각각 1-41편, 42-72편, 73-89편, 90-106편, 107-150편의 다섯 권의 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구분은 후대에 나누어진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못된다. 전편을 유형별로 분류하자면, 신앙공동체의 시, 개인적인 신앙고백의 시, 찬양의 시, 그리고 왕의 시 등이 그것이다. 저자별로 본다면, 다윗의 시가 73편,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 아삽의 시가 12편, 솔로몬의 시가 2편, 그리고 에단과 모세의 시가 각각 한편 씩이다. 나머지 50편은 저자미상이다. 이같이 그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이므로 시편을 말할 때 '다윗의 시'라고도 부른다. 시편의 내용에서 볼 때 유일신관이 왕권사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또 시편에서 말하는 인간은 극단적인 악인과 극단적인 의인의 대결의 장 속에서 그 의미를 지낸다. 또 시편은 사회적인 죄 뿐 아니라 영적이며 개인적인 죄를 깊이 다룬다. 악인의 번영이 있으나 영구치 못하므로 의인이 낙심할바 아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결국 메시아를 대망케 하며 주의 나라의 궁극성을 바라보게 해준다.

8월의 기도제목

1.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2.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의 사명과 헌신
3. 사랑의 집, 선교원 건립
4. 교회와 교회학교의 질적 양적 성장
5. 70인 전도대의 전도활동
6. AD 2000운동 새벽 기도회(8/19-8/31)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1: 6)

복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복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꾀-길-자리, 좇다-서다-앉다'의 세 단계는 점차 발전한 것을 보여줍니다. 복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복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으로 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만사가 다 형통합니다.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결론적으로 복있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인정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떠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악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습니다. 겨가 바람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 참으로 복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은근히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악인과 성별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 (금)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찬송89 성경, 시2 : 1-12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2 : 12)

시편 2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행4: 25-28).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분노하며 대적합니다. 그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땅위에 사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밀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과 도전에 대해 하나님은 기가 막혀웃으십니다(4). 인간이 헛된 일을 계획하고 꾸미는 것을 비웃으시며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선포하십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왕국의 범위는 온 세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철장과 같은 강한 권세로 마치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공의로써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 *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며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3 : 4)

시편 3편은 다윗왕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아들과 수많은 적들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비웃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처한 형편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적들의 화살을 막아주시는 방패이시며,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올리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또한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뿐만아니라, 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같은 확신과 체험이 있기에 도망다니는 형편에서도 편안히 누워 잘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적들이 심히 많으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압살롬의 군대가 천만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 * 다윗은 이같은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에 서 있습니다. 사회를 바라볼 때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위기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4 (주)주께서 주신 기쁨

찬송468 성경, 4 : 1-8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4 : 7)

시편 4편은 3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3편에 이어서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는 고난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마음의 평정 상태, 곧 내적인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긍휼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고난중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요청만 하면 즉각적으로 들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음의 큰 체험이 있고, 성령의 놀라운 경험이 있어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일 뿐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 고난중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집니까?** 고난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의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단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5 : 3)

시편 5편은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서 그의 일상적인 기도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아침에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중에 있었지만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심사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기울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원수를 갚기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그 성품을 따라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들을 멸하여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인도해주시며, 그 길을 자기 앞에 곧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 아침에 깨어서 무엇부터 생각하십니까. 계획된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을 진행하면서 다윗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6 : 6)

다윗이 극한 육체적, 영적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원수들 때문인 것을 이 시에서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시 전체를 통하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회개의 시라고 합니다. 이 회개의 시에서 죄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와, 죄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중한 병을 앓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히 떨리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병이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윗은 고통이 얼마나 격심했는지 밤마다 탄식과 눈물로 요를 적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렸습니다. 분노를 그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과 다시 돌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하나님은 죄를 꾸짖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은 혹시 죄 때문은 아닙니까?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심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7 : 11)

시편 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베나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린 노래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모함하여 해하려는 구시의 말을 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는 사자같이 찢어 뜯으려는 적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이것은 그가 전적으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인의 비난과 정죄에 대하여 결백하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꿰고 의인을 세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며, 악인에게는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회개치 않는다면 칼을 갈고 활을 당기어 가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악인은 스스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며 자기가 만든 악한 것들이 자기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악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 *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앞에서 죄를 지으며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불의가 승리하는 듯이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큰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세상사람들로 부터 핍박을 받을 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의로우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새노래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8 : 1)

이 시편은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에게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을 대조시켜 찬송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놀랍다는 의미에서 이 시인은 더욱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주의 이름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주의 이름이라고 한 이유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들 곧 참된 그리스도 신자들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필경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잠잠하게 될 날이 옵니다. 다윗이 놀라는 일은, 인간은 하늘이나 달이나 별에 비하여 극히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돌아보시는 사실입니다. 그 까닭은 그의 피조물의 가치가 양적으로 큰 데 있지 않고 질적으로 고상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작은 존재이지만 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도 가지고 있고 영화와 존귀를 입어 만물을 통치할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이런 자격을 상실했지만 필경 그리스도의 속죄를 입은 자만은 그런 고상한 자격을 회복합니다.

* *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모두가 은총의 나라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연, 특히 그 가운데 은혜를 입고 있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9:1)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고, 만물을 생성하고, 구름에서 비를 주시고, 이슬까지 내리게 하셨습니다. 땅에는 �곡백과가 열매맺게 하시고, 산천초목이 봄에는 꽃피고 가을엔 단풍들고, 산높고 물맑아 아름다운 경치 주시고,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물 속에는 고기가 풍족합니다. 이러한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살게 하기 위하여 창조의 일반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영을 살게 하기 위하여 특별 은혜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셨고, 지옥에서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감사는 가중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이 원치도 않습니다. 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과거엔 정욕 덩어리로 죄악의 덩어리였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값주고 산 이후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의의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실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물질의 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물질 자체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몸을 드리는 표로써 드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새노래로 감사합시다.

10 (토)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 이유

찬송432 성경, 시9 : 10-20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9 : 19)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들과 열방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주권 행사이며, 당신의 영광과 진리의 입증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위에 홀로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까? 의인의 안전과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시편에서는 대개의 경우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의인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악인이 풍요하게 살고, 정직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자는 가난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심판의 손을 펴시는 것은 이러한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인의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의인이 세상에서 또 악인에게서 승리해야함은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것이므로 의인은 승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의가 승리하지 못하면 인생은 무가치한 것이 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의의 승리, 이것은 역사의 동력이며 또 목표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악인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위해서 심판은 꼭 있어야만 합니다.

****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가 가장 쉬운 때는 인생의 한계에 부딪칠 때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은 심중팔구 복음을 들을 때 부정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부에 자기를 지탱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10 : 17)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의인이란 자신과 시대의 악을 바로 직시할 줄 알고, 그것을 찢어지는 듯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아, 엘리야, 호세아와 아모스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들을 어떻게 연단하셨으며, 보호하셨을까요? 세상은 겸손한 자를 넘어뜨리고 의로운 자를 핍박합니다. 특히 겸손한 자들은 그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비례하여 더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성도의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할 때 그들은 곧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즉시 사라진 것처럼 전쟁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더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기까지는 악이 사라지지 않으며, 따라서 의인들의 고난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은 의에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도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40일간의 금식을 하셨고, 모세도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과정을 겪은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주어지는 훈련입니다.

****** 하나님은 한번도 겸손한 자들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자들은 교만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고아와 과부와 압박당하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받는 위협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12 (월)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찬송490 성경, 시11 : 1-7

「여호와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 하시나니」(11 : 7)

세상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란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추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야만 의인이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의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순탄하고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원초적인 잘못됨을 교정받기 위해서, 성결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새롭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목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전져 주십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시다. 항상 의인의 편에 서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 ＊ 한 성읍의 흥망이나 한 나라의 성쇠는 의인이 있고 없는데 좌우되었습니다. 소수나마 의인이 존재한 나라는 쇠하거나 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며 흥망케 하십니다. 의인에게 무슨 큰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의인을 보시고 그의 은혜로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존재가 이렇게 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교회와 민족을 흥망케하는 의인들이 되도록 힘쓰시다.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번 단련한 은 같도다」(12 : 7)

하나님의 말씀은 성격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말씀들은 교훈적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꾸짖음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순결이라는 본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순은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흠도가니에서 일곱 번이나 정련시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은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순결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정화시키길 원한다면 이러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련된 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정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이나 은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소중한 보물이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소중한 보물임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은 그 활자뒤에 숨어 있으므로 오묘한 진리를 찾아내려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 *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너무도 자주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디어진 반면에 온갖 세상의 소리에는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때문입니다.

기도 금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연구하게 하옵소서. 각 전도회에 전도의 열기를 불어 넣으소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13 : 6)

초대 교회 당시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찬미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교회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더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으며,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는 폭풍우가 치는 배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모라비안들의 찬송을 듣고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송은 타인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자신의 영혼 뿐만 아니라 남의 영혼까지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대하 22장에는 찬송으로 이긴 전쟁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와 모압 연합군과의 싸움으로 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군대의 맨 앞에 성가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며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수나 장비면으로 열세인 유다는 믿음에 찬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이 그 전쟁에 비상개입하셔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때가 악한 이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때문에 찬송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렁찬 찬미는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심적 상태가 고통으로 얼룩져 있을수록, 찬송은 필요하며, 찬송은 불리워져야 합니다. 찬송은 성도의 적극적인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항상 찬송하며, 쉬지 말고 찬송하며, 범사에 찬송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7 : 6)

드디어 해방의 아침은 밝아왔습니다. 46년전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하에서 36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말과 재산과 모든 것을 빼앗긴채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암울하던 시절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도 기쁘지만 더욱 기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율법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도 되었지요. 그러나 이런 율법적인 노예생활에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만 믿으면 노예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탄이 시키는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좀처럼 죄의 죄사슬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사탄이 시키는대로 계속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하면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 여러가지 시험, 환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있는 기독교인에게 참다운 소망은 해방입니다. 이 소망이 영원한 것이 되기위해 예수님만 굳게 믿읍시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14: 1)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라고. 지혜가 부족한 자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들 자신들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공의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활에 부패가 나타나고 행동에 가증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니 그것이 더 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에게 자연발생적 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회개 하지 못하듯이 인간 그대로는, 어리석은 그대로는 선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자가 되는 것은 향상의 수준이 아닙니다. 변화의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5:17).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15 : 1)

본문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가는 길은 분명히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 살 수준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수준은 우리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과 밀접하여 경히 여기는 동작 하나하나가 수준을 나타냅니다. 언어 생활에 진실, 남을 존대하는 것, 약속의 이행, 물질거래의 정직 등입니다. 영광스런 천국에 들어 갈 자격은 되어도 천국시민의 수준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도 불행일 것입니다. 이 영적 수준 향상은 작은 일 한가지 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 신약 100독, 10년 연속 봉사 등으로 단 번에 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처마밑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듯이 차츰차츰 향상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의 거짓말도, 한 동작의 악행도 스쳐지나가게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천국 시민 행실 규범집은 다름아닌 성경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는 빼뚫어진 행실을 똑바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흠이 들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뿐입니다. 또한 보기만 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도다」(16:2)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가 암탉의 나래아래 숨듯이 우리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몸과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신뢰에 대한 적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일하시기에 우리는 “주께(만) 피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은 의심과 인간의 판단입니다. 의심의 구름이 끼일 때에는 이미 진리의 태양의 열과 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전지보다 앞 설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의심의 구름은 성령의 바람으로 물러가게 해야하고 땅의 지혜에만 내려다 보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힘써 드릴 때 감사의 마음이 넘칠 것입니다. 의심과 판단하는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앞세웁시다.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16 : 10)

산에 가서 울창한 숲을 보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봄이 되어 나뭇잎이 생겨서 푸르다가 가을이 되어 낙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 낙엽이 썩어서 거름이 되어 그 나무를 윤택하게 해 줍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자연현상은 우리 인생의 유한과 무한을 아울러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악때문에 늙어서 노쇠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영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같은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영생 아니면 지옥에서의 영벌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좋고 즐거운 일은 오래갈수록 좋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을 차치하고라도 지옥불못에서의 영생은 생각할수록 전율할 일인 것입니다.

＊ ＊ 베드로와 바울은 본문의 내용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이른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행 2:25-31:13:35-38). 본문은 다윗의 경험이요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성취하셨기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응답하시겠는고로 불렀사오니」(17 : 6)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여러가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의 한가지가 기도자가 죄를 멀리한 가운데 기도한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흠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강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실족한 걸음을 걷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운데 있으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하여 결백했기에 확신을 가지고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강한 확신도 회개한 후 깨끗한 손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생긴다는 교훈을 얻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은 전혀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은 죄를 고백할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 중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죄악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 * 성경중에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를 그림같이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사59:2). 죄악의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할 때 먼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고 받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간구와 응답이 두절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통을 위하여 죄악의 담을 털어버립시다.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17:7)

인자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자비, 불변의 언약적 사랑,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함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인자를 또한 ‘기이한 인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쉽게 찾아 볼수 있는 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니 그 인자가 기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메뚜기와 같은, 벌레와 같은 인간을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최악의 저주에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의의 옷을 덮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 또한 기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인자를 나타내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었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기에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원수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병이 사랑 불감증이 아닌가 합니다. 사랑에 대하여 감사, 기쁨, 보답의 마음을 잃어버린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이 로봇으로 변해가듯이 감정이 메마르고 정서는 굳어 가며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람으로 바뀌버립니다. 사랑 불감증에서 치료받는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본받읍시다.

22 (목)찬양 받으실 하나님

찬송194 성경, 시18 : 1-15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18 : 1)

이 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그리고 산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군사적인 것인데 전쟁과 연관을 맺어온 다윗이 그의 생애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뜨겁게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 다윗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진동, 뇌성, 폭풍우, 번개, 우박, 바람 등을 들고 있습니다. 왜 이와같은 현상을 비유로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충분히 나의 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18 : 19)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요3:16). 그런데 이 진리와 반대되는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의가 구원의 조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윗이 이구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앞에서 흠없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의가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기에 이제 다윗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감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이신득의'의 확고한 진리를 송두리채 뒤엎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다윗을 구체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의 길을 완전케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또 다윗을 무장시키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온유함으로 그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으로 다윗을 원수와 싸우게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루 하루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24 (토)하나님을 발견하라

찬송301 성경, 시19 : 1-14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19 : 14)

다윗의 신앙이 위대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가 행한 업적을 통해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의 영혼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기나긴 밤을 양을 지키려고 빈틈에서 자는 밤도 있었고 이른 새벽에는 양떼들을 몰고 푸른 풀밭을 찾아다니며 양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직업인으로서 일상에 있는 일들이겠지만 그는 이른 아침에 동쪽 하늘에서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느꼈고, 밤에는 한없이 많은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뿐만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한없이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와 울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신앙은 이와같이 내적인 동기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므로 시작된 것입니다.

*** 우리는 일상생활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이미 주셨습니다. 누가 그분을 찾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할 것인가요?

「또 주의 증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하사」(19 : 13)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본래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심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므로써 생명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이러한 신앙적 원리를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숨은 허물'은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한 동의적 대귀법으로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자신이 범한 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뿐만아니라 자신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고범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고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13). 다윗은 본문에서 지금 율법에 의해 자신이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 구속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 요즈음은 신문에 끔찍한 살인 사건이나 나면 모를까 웬만한 일에는 놀라거나 흥분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회가 악해졌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죄와 사건에 대해 무뎌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지극히 적은 죄도 죄인 만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인하여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20 : 1)

시편 20편의 내용은 사무엘하 10장과 역대상 19장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임금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 암몬 왕 나하스의 신세를 진 일이 있습니다. 나하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몹시 슬퍼하면서 훌륭한 신하 몇 사람을 조객으로 암몬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암몬 나라의 신하들은 이 일을 침략을 위한 기밀정탐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능욕하여 돌려보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웃 나라의 군인들을 샅을 내어, 병거 700승, 마병 4만명,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보병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전쟁의 회오리를 접하게 된 다윗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렇게 세상이 악독하여 도무지 인간이 인간을 믿을 수 없나이다. 원수의 세력이 바다의 조수와 같이 밀려오고 있사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 환난 날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병거를 의지하고 왔느냐, 너희는 마병을 의지하고 왔느냐? 나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20:7).

※ ※ 우리는 때때로 선을 행하다가도 생각지 않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도 낙심하지 말고(갈6:9)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여호와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믿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21 : 13)

시편 20편이 전쟁을 앞두고 쓰여진 기원시라면 본시는 그 기원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후 돌아와서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로 하나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전쟁터로 나아가 싸움에 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원수가 준비한 병거 7백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때려 부수고 마병 4만명도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처치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람바라고 하는 수도를 정복했으며 하눈왕이 머리에 썼던 금면류관을 벗겨서 다윗 왕이 쓰고 하눈왕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환경을 넘어서서 믿음 안에서 두려움없이 나아가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대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다음과 같이 마음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13).

**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보고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면 도와준 사람의 신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가 잘나서 성공하고 이긴 것처럼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돌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의 시작은 올바른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8 (수)고난의 부르짖음과 찬양의 노래

참송431 성경, 시22 : 1-31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22 : 24)

본문은 이사야 53장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일들을 천년 전에 예언한 예언서로도 유명한 시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22:1)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22:17)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18) 그러나 본문의 실제적인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으며 온갖 수난을 겪을 때에 쓰여진 것입니다(삼상23:24-29). 이 시기에 다윗이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본시에 묘사되고 있는 흔히 볼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이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래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있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본문에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할 정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지속적이었던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은 상황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부의 고통속의 기도가 후반부에서 찬양의 소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과정과 함께 궁극적인 기쁨이 있음을 잘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 성도의 신앙 생활 중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심으로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헛수고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망치 말고 '원한을 가진 과부'처럼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눅18:1-8).**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23 : 1)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평화롭고도 조용한 즐거움으로 본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시에는 비참한 현실을 아뢰는 구원의 간구가 전혀 없고 단지 감사의 고백속에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등 아름다운 회화적 배경을 가지고 간결하면서도 우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시에서 다윗은 선한 목자를 예로 들어 3단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무리를 인도하여 잘 먹고 잘 지내도록 보살피 주고 자신이 아는 올바른 길로 행하게 합니다(2, 3절). 이 올바른 길은 때로 강도들과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는데 그때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무리가 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하여 줍니다(4절). 이와 같이 인도와 보호를 하신 후 선한 목자는 양으로서는 과분하게 느껴지는 풍성한 축복을 내려줍니다(5절).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목동이었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고 목자가 있으면 살게된다는 차원에서 목자는 양의 생명과 같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도 양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24 : 7)

사울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헤브론에서 7년동안 한쪽 모퉁이 유다지파의 임금으로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임금님으로 모시기로 해서 다윗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된 후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곳에 성막을 지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본 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실 때에 백성들의 마음 문을 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1~2절) 여호와와 복을 받고 그분의 의를 얻어가는 누구인가를 말하고(3~6절) 결론으로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적극적인 찬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 앞에 설 자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은 외적인 일이라기 보다는 내적인 신앙의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하겠습니까.

※※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특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성전'인 각 성도들의 마음에는(고전3:16;6:19) 하나님만을 모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재물에 대한 탐욕, 육신의 정욕 등만이 가득하다면 이는 더 이상 '성전'이 되지 못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25 : 1)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속에서 지어진 시를 보면 그는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감사하였고 어렵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도예 앞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를 늘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1절) 이 귀절은 그의 기도의 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으며 또 이러한 선언은 여태까지 자기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며(8) 온유한 자에게 길을 인도하시며(9) 신실한 자를 돌아보시는 인자하신 하나님(10), 회개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11) 택할 길을 가르치시는(12)....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15)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찾는 생활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아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재물 등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